



등록신청

온라인 워크숍

코로나19 학습자중심 온라인 대학교육의 미래를 앞당기다

2020. 05.14.(목)
15:00 - 16:30

사회자 | 이상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기조강연자 | 권영선 교수 (KAIST 교육원장)

사례발표자 | 김강산 (Minerva Schools at KGI)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

The Knowledge Center for Innovative Higher Education

제 17차 대학교육혁신 온라인 워크숍

코로나19, 학습자 중심
온라인 대학교육의 미래를 앞당기다

워크숍 일정안내

2020년 5월 14일 (목)

워크숍: 15:00 – 16:30분

청중토론: 16:30분 – 토론 종료시

환영인사 및 소개

이상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기조 강연. 대학교육시스템 혁신의 동인(動因)과 과제

권영선 교수 | KAIST 교육원장 |

질의응답 (Kahoot 활용)

권영선 교수와 워크숍 참가자

사례 발표. 개인별로 맞춤형된 데이터 기반 교육실현: 미네르바대학

김강산 | Minerva Schools at KGI |

질의응답

김강산 님과 워크숍 참가자

공개 토론회

이상원 교수, 권영선 교수, 김강산 님, 모든 참가자

참가자 토론

4시 30분 – 분반 별 토론 종료시

이상원 교수, 권영선 교수, 김강산 님, 워크숍 참가자

사전등록신청

기조 강연 안내

대학교육시스템 혁신의 동인(動因)과 과제 (권영선 교수, KAIST 교육원장)

본 강연에서는 국가교육 서비스 생산 및 전달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대학교육시스템의 발전 동인을 시간의 축에서 논의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대학교육시스템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행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청중과의 소통을 통한 인터랙티브 강연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었듯이 교육 혁신의 가장 큰 동인도 기술혁신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유사 이래 대표적인 교육방식인 대면 교육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우편제도와 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원격지 교육이 시작되었고,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최소한 10년은 먼저 거의 모든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상호작용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 전달과정의 혁신이 교육의 혁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유연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대학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되어갈 것이고, 변화하지 못하는 학교는 도태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야 할지 본 강연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사례 발표 안내

개인별로 맞춤형 데이터 기반 교육실현: 미네르바 대학 (김강산, Minerva Schools at KGI)

온라인 기술 플랫폼 Minerva Forum™ 은 “개념 중심 교육과정”, “소규모 토론식 수업”, “거주 국가를 변경하며 현지 프로젝트 진행” 을 가능하게 한 미네르바 대학의 핵심기술이다. Minerva Forum™ 을 활용한 3중 (Tri-layer) 교육법과 학생 중심 학습 시스템은 현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육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네르바 대학에서 AI와 국제경영을 전공하며 Space Generation Advisory Counci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산 발표자는 본 강연에서 오프라인 교육의 대안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본 워크숍을 통해 미네르바 대학의 특화된 수업 과목, 집약된 학습 내용의 효율적 전달방법,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참여 정도와 토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열린 질의 응답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